

# 일본 경제 동향\_2015년 7월

## (TPA 법안 통과 후 미일 TPP 교섭)

### < 목 차 >

<b>I.</b>	<b>일본 경제 지표</b> .....	<b>1</b>
<b>II.</b>	<b>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</b> .....	<b>2</b>
1.	경기회복세 주춤 .....	2
2.	무역적자 크게 축소 .....	6
3.	엔저·고주가·고금리 지속 .....	10
4.	해외직접투자 증가세 유지 .....	12
<b>III.</b>	<b>일본의 주요 정책</b> .....	<b>13</b>
1.	TPA 법안 통과 후 미일 TPP 교섭 .....	13
2.	경제·재정 재생계획 .....	15
<b>IV.</b>	<b>한일 경제관계 분석</b> .....	<b>17</b>
1.	대일 무역적자 3개월 만에 확대 .....	17
2.	일본인 직접투자 급증 반전 .....	20
<b>V.</b>	<b>참고 자료</b> .....	<b>21</b>
1.	주요기관 연구보고서 .....	21
2.	주요 경제 일정 .....	23

## I. 일본 경제 지표

구 분	2013	2014	2014			2015				
			2/4	3/4	4/4	1/4	2/4	4월	5월	6월
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, 2010=100)	-	-	-	-	-	-	-	111.0	109.0	-
GDP증가율(연율,%)	1.6	△0.1	△6.8	△2.0	1.2	3.9(p)	-	-	-	-
국내투자 (조엔)	66.0	69.5	16.3	17.7	16.2	20.4	-	-	-	-
해외직접투자(조엔)	13.2	12.6	2.0	2.1	4.9	3.5	-	1.0	2.1	-
소비자물가 상승율(%)	0.4	2.6	2.3	0.3	△0.1	△0.3	-	0.3	0.2	-
실업율(%)	4.0	3.6	3.6	3.6	3.5	3.5	-	3.3	3.3	-
수출(조엔)	69.8	73.1	17.6	18.3	19.8	18.9	18.8	6.6	5.7	6.5
수입(조엔)	81.3	85.9	20.2	21.2	22.1	20.4	19.1	6.6	6.0	6.6
무역수지(조엔)	△11.5	△12.8	△2.6	△2.9	△2.3	△1.4	△0.3	△0.1	△0.2	△0.1
경상수지(조엔)	3.3	2.6	0.3	1.7	1.4	4.2	-	1.3	1.9	-
환율	97.7	105.8	102.1	104.0	114.3	119.1	121.4	119.6	120.7	123.8
금리(10년물,%)	0.72	0.55	0.60	0.53	0.44	0.34	0.40	0.33	0.41	0.47
주가(닛케이)	13,651	15,460	14,655	15,562	16,660	18,226	20,058	19,768	19,974	20,404

주: (p)는 2차 속보치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- (경기판단) 경기회복세 주춤
  - '15.5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09.0으로 전월비 2.0p 하락
- (소비자물가)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
  - '15.5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.2%
- (무역수지) 무역수지 690억 엔 적자로 전월대비 적자폭 축소
  - '15.6월 수출은 6조 5,057억 엔, 수입은 6조 5,748억 엔
- (환율) 엔저 가속
  - '15.6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23.8 엔으로 전월비 2.6% 엔저
  - \* '15.6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899원으로 전월대비 0.7% 엔저·원고

## 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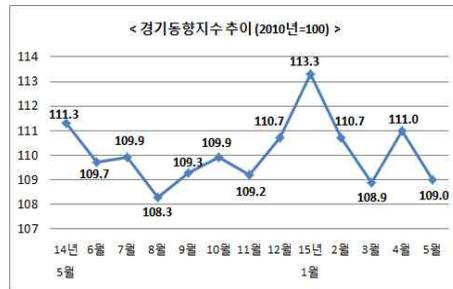
### 1. 경기회복세 추춤

#### □ (경기기조 판단)

○ 설비투자 및 임금소득은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, 수출과 생산이 일시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세가 주춤

- 7월 6일 일본내각부가 발표한 5월 경기동향지수에 의하면 경기현황을 나타내는 일치지수가 109.0으로 전월비 2.0p 저하, 2개월 만에 악화

· 경기동향지수 관련 11개 지표 중 내구소비재출하지수와 광공업생산출하지수 등 9개 지표가 마이너스를 보인 외에 광공업생산지수와 상업판매액도 부진



자료 : 내각부

- 6월 경기위치조사에서도 현상판단지수(3개월 전부터 경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 : DI)가 전월보다 2.3p 하락, 2개월 연속 경기악화

· 원재료와 신변용품의 가격상승에 더하여 그리스 금융 사태에 따른 추가하락·엔고에 대한 우려가 배경

- 다만 경기동향지수보다 뒤늦게 발표한 7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일본 내각부의 기조 판단은 개인소비와 투자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들어, 3개월 연속 완만한 회복으로 고정

#### □ (전 망)

○ 각종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조만간 다시 완만한 회복세를 되찾을 전망

-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안에 따른 수출부진, 대내적으로는 엔저와 기후불순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이에 따른 소비부진 등의 위험도 잔존

## <GDP>

### □ '15.1분기 고성장에서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 전망

○ '15.1분기 실질 GDP성장율은 전기비 1.0%, 연율 환산으로는 3.9%의 고성장을 시현  
- 소비세를 인상 후 침체된 개인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외에, 특히 기업이익의 개선 등에 따른 설비투자의 활성화, 주택투자의 플러스 반전 등이 고성장에 기여

○ 그러나 2분기에는 수출과 생산의 약세에 더하여 개인소비가 침체를 보이고 있어 GDP성장율이 마이너스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

- 미즈호종합연구소 전망에 따르면 2분기 GDP성장율은 1분기 고성장의 반작용도 있어 전기비 -0.3%, 연율 -1.3%

- 아시아태평양연구소도 가장 최근 전망에서 2분기 GDP성장율을 전기비 -0.2%, 연율 -0.8%로 예측

○ 그러나 점차 일본경제는 다시 완만한 회복세를 되찾아 2015년 전체로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전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할 전망

- 2015년에는 엔저기조의 정착에 의한 수출환경 개선과 유가하락의 영향에 의한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최소한 플러스 성장은 가능할 전망

- 일본 내각부의 시산에 의하면, 2015년도의 실질 GDP성장율은 1.5% 정도

- 다만,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불안에 따른 수출부진, 대내적으로는 엔저와 기후불순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이에 따른 소비부진 등의 위험도 있음

### <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(%) >

구 분	2013	2014	2014				2015
		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	1-3월(p)
전기비			1.1	△1.7	△0.5	<b>0.3</b>	<b>1.0</b>
전기비연율	1.6	△0.1	<b>4.4</b>	<b>△6.8</b>	<b>△2.0.</b>	<b>1.2</b>	<b>3.9</b>
전년동기비			2.4	△0.4	△1.4	△1.0	△0.9

자료: 내각부, (p)는 2차 속보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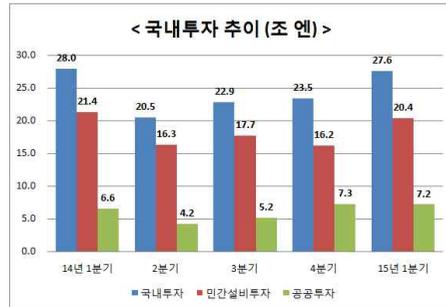
## <국내 투자>

### □ '15.1분기 국내투자 호조로 고성장을 견인

- '15.1분기 국내투자(민간설비투자+ 공공투자)는 전기비 실질 1.6% 증가, 명목기준으로는 17.3% 증가

### □ (민간설비투자)

- '15.1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26.1% 증가한 20.4조 엔, 국내 투자의 74.1%를 차지
- 7월 월례경제보고에서 일본 내각부는 투자에 대한 기준판단을 전월과 같은 회복으로 유지



자료 : 내각부

- 앞으로도 당분간은 엔저기조의 정착, 유가 하락 등을 배경으로 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, 생산 및 기업수익 회복 등에 의해 투자의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

- '15.5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(선박,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)은 전월비 0.6% 증가
- 엔저 등을 배경으로 해외투자기업의 유턴에 의한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



자료 : 경산성, 내각부

### □ (공공투자)

- '15.1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.4% 감소한 7.2조엔으로 국내투자의 25.9%를 차지
- '15.1분기의 공공투자가 감소한데 이어 5월의 공공공사 수주액과 6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도 크게 줄고 있어(각각 전년동월비 28.7% 감소, 1.8% 감소)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

## <소비자물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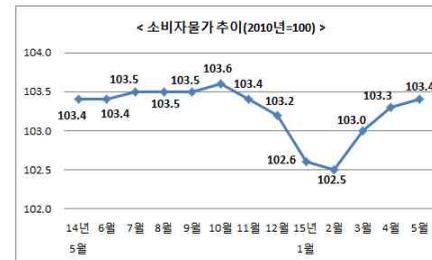
### □ '15.5월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상승

- '15.5월 소비자물가지수(생선·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는 103.4로 전월비 0.2% 상승,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
- 유가하락의 억제요인에도 불구하고, 생선·식품 외에 커피와 숙박요금 등의 상승이 물가상승에 기여
- 전년 동월 대비로는 0.1% 상승했으나 5월부터는 소비세인상의 영향이 완전 해소됨
- 앞으로 당분간은 엔저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나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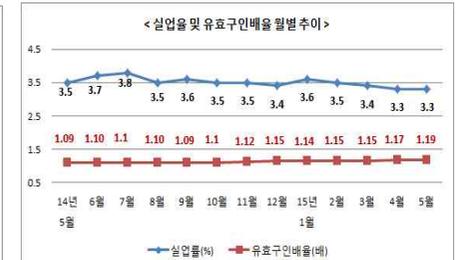
## <실업률>

### □ 고용의 안정세 유지

- '15.5월 완전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.3%를 유지
- 15~24세 청년층의 완전실업률은 5.5%로 전월보다 0.5%p 상승, 청년실업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
- '15.5월 유효구인배율은 23년 2개월만의 최고수준인 1.19배로 전월보다 0.02p 상승
- 의료·복지 관련 신규 구인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, 구직자 수는 감소하여 건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일손 부족현상이 계속되면서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



자료 : 총무성



자료 : 후생노동성

## 2. 무역적자 크게 축소

### □ (총 합)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축소

- '15.6월 무역수지는 690억 엔 적자로 전월보다 적자폭이 1,481억 엔 축소
  - 전월대비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
  -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3,816억 엔에서 4,118억 엔으로 확대된 반면, 對미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4,037억 엔에서 5,788억 엔으로 대폭 확대
  - 전년동월비로는 유가하락 등을 배경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축소
- 향후 수출의 회복에 따라 무역적자는 축소될 것이나 유가 동향이 불투명한 요인
  - 그러나 엔저 지속에 따른 수입비용 상승 및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물량의 증가 가능성 등에 비추어, 무역수지의 흑자전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
- 한편, 2015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1조 7,251억 엔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5조 9,031억 엔 축소
  - 유가하락이 크게 기여
  -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년동기의 2조 9,273억 엔에서 2조 9,587억 엔으로 약간 확대된 반면, 對미국 흑자는 전년동기의 2조 7,828억 엔에서 3조 4,088억 엔으로 크게 축소

< 2015년 6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5.5월			2015.6월			2015.1-6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 (전년동기비)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수 출	5.7	2.4	-12.4	6.5	9.5	13.3	37.8	7.9
수 입	6.0	-8.7	-9.1	6.6	-2.9	10.4	39.5	-7.4
수 지	-0.2	-76.5	100.0	-0.1	-91.7	-68.2	-1.7	-77.4

자료 : 재무성

### □ (수 출) '15.6월 수출, 금액·물량 모두 전월대비 크게 증가 반전

- '15.6월 수출은 6조 5,057억 엔으로 전월비 13.3% 증가, 전월의 -12.4%에서 크게 반전
  - 전년동월대비로는 9.5% 증가
  - 수출물량도 전월비 10.0% 증가, 전년동월대비로는 0.1% 증가
-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철강, 자동차부품, 원동기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, 플라스틱 대신에 원동기가 포함된 가운데, 5대 품목 모두 전월비 수출이 증가
  -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져, 각각 41.4%, 13.8% 증가
    - \* 특히 자동차의 對미국 수출이 호조, 전월비 45.2% 증가

< 2015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5.5월			2015.6월			2015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 (전년동기비)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자동차	7,613	0.2	-22.2	10,762	16.9	41.4	56,425	9.6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190	11.8	-3.3	3,334	14.9	4.5	19,285	14.0
2	철강	3,031	-6.7	-5.9	3,063	-8.0	1.1	19,546	0.7
4	자동차부품	2,537	-1.7	-19.8	2,887	2.4	13.8	17,131	2.3
5	원동기	1,933	-0.3	-19.1	2,148	3.7	11.1	13,205	6.1

자료 : 재무성

- 주요 수출상대 지역·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 수출이 증가
  - 對미국 수출 증가폭이 19.9%로 가장 크고, 이어 ASEAN, EU, 한국, 대만, 중국 순으로 수출 증가폭이 큼
  - 對한국 수출은 10.5% 증가
- 한편, 2015년 상반기 수출은 37조 8,080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7.9% 증가
  - 품목별로는 반도체 전자부품의 수출증가율이 14.0%로 가장 높고, 이어 자동차, 원동기, 자동차부품, 철강 순

- 주요 지역·국가별로는 모두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, 對미국 수출증가율이 16.6%로 가장 높고, 이어 ASEAN, 대만, EU, 한국, 중국 순

< 2015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 (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5.5월			2015.6월			2015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미국	10,861	7.4	-20.3	<b>13,025</b>	17.6	<b>19.9</b>	75,366	16.6
2	중국	10,607	1.1	-5.4	<b>11,602</b>	5.9	<b>4.3</b>	64,731	2.2
3	ASEAN	8,752	2.3	-12.3	<b>9,718</b>	7.8	<b>11.0</b>	58,659	10.9
4	EU	6,022	0.4	-5.8	<b>6,655</b>	10.8	<b>10.5</b>	38,894	5.1
5	한국	4,185	-0.7	-12.9	<b>4,624</b>	9.5	<b>10.5</b>	27,778	4.5
6	대만	3,703	9.5	0.7	<b>4,021</b>	14.8	<b>8.6</b>	22,256	8.1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입) '15.6월 수입도 전월대비 증가 반전

- '15.6월 수입은 6조 5,748억 엔으로 전월비 10.4% 증가, 전년동월비로는 2.9% 감소
  - 수입물량도 전월비 8.5% 증가, 전년동월비로는 1.4% 감소
-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, 액화천연가스, 반도체 등 전자부품, 의약품, 의류·동부속품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, 통신기 대신에 의류·동부속품이 포함된 가운데, 모두 수입이 증가
  - 5대 품목 모두 전월의 수입 감소에서 수입증가로 반전된 것은 유가하락의 영향이 해소된 대신, 엔저와 부분적인 경기회복을 반영한 것임

< 2015년 6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엔, %) >

순위	품목	2015.5월			2015.6월			2015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원유	6,455	-31.7	-11.7	<b>6,731</b>	-36.7	<b>4.3</b>	41,847	-42.5
2	액화천연가스	3,154	-44.1	-24.8	<b>3,665</b>	-37.3	<b>16.2</b>	31,403	-19.6
3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196	0.6	-10.9	<b>2,534</b>	9.3	<b>15.4</b>	14,934	5.3
4	의약품	2,014	8.1	-16.8	<b>2,347</b>	33.8	<b>16.5</b>	12,812	17.4
5	의류·동부속품	1,985	-4.1	-28.8	<b>2,271</b>	9.5	<b>14.4</b>	15,371	6.0

자료 : 일본 재무성

- 주요 수입대상 지역·국가별로는 모두 수입이 전월보다 증가한 가운데, ASEAN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16.3%로 가장 크고, 이어 호주, 중국, 미국, EU, 한국 순

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0.3% 증가

- 한편, 2015년 상반기 수입은 39조 5,330억 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7.4% 감소

- 품목별로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, 여타 품목은 수입이 증가

- 주요 지역·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한 반면, 여타 지역·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감소

< 2015년 6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엔, %) >

순위	국가	2015.5월			2015.6월			2015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1	중국	14,423	1.5	-9.7	<b>15,720</b>	6.9	<b>9.0</b>	94,318	1.9
2	ASEAN	8,572	-10.0	-11.4	<b>9,966</b>	5.2	<b>16.3</b>	60,654	-0.7
3	미국	6,824	11.5	-4.4	<b>7,237</b>	14.9	<b>6.1</b>	41,277	12.1
4	EU	6,611	1.1	-2.0	<b>6,963</b>	6.5	<b>5.3</b>	40,442	-0.7
5	호주	3,021	-22.9	-19.8	<b>3,315</b>	-18.2	<b>9.7</b>	22,123	-11.8
8	한국	2,785	-0.7	-3.5	<b>2,792</b>	-0.8	<b>0.3</b>	16,814	-4.3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# 3.엔저·고주가·고금리 지속

#### □ (주 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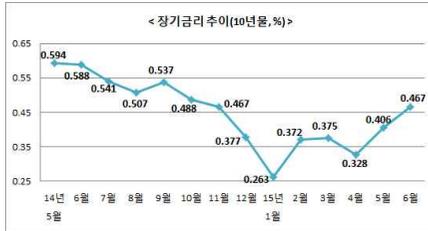
- '15.6월 평균 주가는 엔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2.2% 상승한 20,404엔
- 그리스 정세의 불투명, 중국주가의 하락 영향 등으로 하락했으나, 그리스 정세의 진전 등에 따른 해외주가 상승의 반발로 상승세를 회복, 7월23일 기준 20,842엔

#### □ (금 리)

- '15.6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해외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14.6% 상승한 0.47%
- 7월에는 2일 0.52%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, 7월 21일 기준으로 0.42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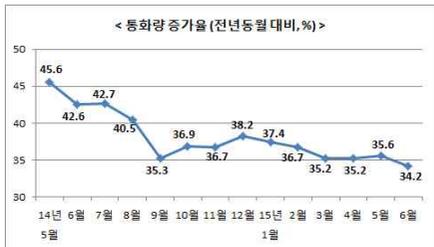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경제신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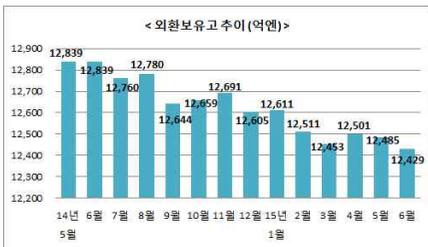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상호증권

#### □ (통화량)

- '15.6월 본인통화(머니터리베이스기준),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4.2%



자료 : 일본은행



자료 : 재무성

#### □ (환 율)

- '15.6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보다 2.6% 상승한 123.8엔(엔저)
- 7월 들어서는 그리스 정세의 불투명 등에 따른 엔화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121엔 대까지 엔저가 후퇴했으나 그리스 정세의 진전 등으로 다시 엔저가 가속, 7월22일 기준 124.3엔
- 당분간은 미·일 간 금융정책 및 경기상황의 차이(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완화 중단,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완화 계속 등), 일본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
- 그러나 현재 시장 환율은 구매력평가(2015년 2월말 기업물가지수 기준, 달러당 약 100엔)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구매력평가로의 회귀·조정 가능성이 큼
- '15.6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899원으로 전월의 905원에 비하여 0.7% 엔저·원고



자료 : 일본은행



자료 : 한국은행

#### 4.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유지

##### □ (동향) 대양주와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 급증

- '15년 5월 해외직접투자액은 2조 757억 엔으로 전월비 107.1% 증가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 %) >

	2013	2014	2015						
			12월	1월	2월	3월	4월	5월	
금 액	131,946	125,929	13,570	11,901	13,833	9,244	10,023	20,757	
증가율	전기비	34.9	-4.6	-6.7	-12.3	16.2	-33.2	8.4	107.1
	전년동기비	34.9	-4.6	-22.2	-5.6	113.3	28.2	-51.3	177.1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### □ (지역별) 대양주, 북미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 對 유럽 투자는 감소

- 대양주 및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각각 전월비 857.9%, 73.7% 증가  
\* 한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
-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감소

< 일본의 주요지역·국가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엔, %) >

	2014년		2015.4월			2015.5월		
	금액	증가율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
				전월비	전년동월비		전월비	전년동월비
대세계	125,939	-4.6	10,023	8.4	-51.3	20,757	107.1	177.1
아시아	37,617	-4.3	-1,098	-	-	6,797	-	329.9
중 국	7,150	-19.3	1,287	33.5	204.3	781	-39.3	64.1
한 국	3,328	3.7	140	-50.9	-24.7	93	-33.6	520.0
북 미	46,264	1.2	1,440	-62.7	-90.3	2,440	69.4	22.6
미 국	44,365	3.3	1,393	-63.4	-90.0	2,420	73.7	26.3
중남미	7,710	-22.1	2,367	-59.6	83.8	1,851	-21.8	421.4
유 럽	26,310	-16.7	6,310	443.9	270.9	3,140	-50.2	-2.6
대양주	5,963	1.2	660	137.4	35.5	6,322	857.9	-
중 동	527	-	97	38.6	-	34	-65.0	-65.0
아프리카	1,539	205.4	248	29.2	-31.9	173	-30.2	-38.7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### □ (특징)

- '15년 1분기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이 40%, 비제조업이 60% 차지  
\* 제조업은 화학·의약이 30.5%, 비제조업에서는 금융·보험이 52.8%
-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매수가 가속화, 상반기 중 매수총액이 전년동기비 60% 증가한 약 5조 6,000억 엔으로 6개월 단위로는 과거 최고수준  
- 특히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와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따른 공격적인 투자로 대형 M&A가 증가

#### III. 일본의 주요 정책

##### 1.TPA 법안 통과 후 미일 TPP 교섭

##### □ 쌀과 자동차 분야가 최대 쟁점

- TPA(무역촉진권한) 법안의 美의회 통과로 미일 TPP교섭이 큰 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국면을 맞고 있음
- 일본이 성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주식용 쌀은 미국이 연간 17만5천 톤의 무관세수입한도를 요구해온 반면, 일본은 5만 톤 정도가 한계라고 주장
- 한편, 일본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일본산 부품에 부과하는 2.5%의 관세철폐가 쟁점으로, 가능한 한 많은 부품을 즉시 관세철폐의 대상으로 하려는 일본에 대하여 미국은 철폐기간을 유예하려는 입장
  -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중, 전 품목의 50% 이상이 TPP발효 직후 철폐되고 잔존 품목들도 대부분이 10년 이내에 철폐될 전망
  -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련 부품 수출액은 2조엔 규모로, 2.5%의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 약 500억엔의 철폐효과를 예상
  - 한편, 자동차 본체에 대한 2.5% 관세는 TPP교섭 가운데 철폐기간이 가장 길어 철폐 시까지 최소한 10년 이상, 경우에 따라서는 20-30년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
- 미일 모두 좀처럼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 쌀과 자동차는 최종적으로 하나로 묶어 타협점을 모색하게 될 전망
  - 사무레벨에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인 조율을 한 다음 7월 말경 예정된 각료협에서 결정토록 할 공산이 큼
- 쌀 이외에 농산품은 거의 의견차가 좁혀져 최종 조정 단계에 있음
  - 미국산 쇠고기에 일본이 부과하고 있는 38.5%의 관세는 10년 이상에 걸쳐 10% 전후까지 인하할 방향

-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도 수입가격이 낮은 만큼 세액이 높아 킬로그램당 50엔 전후의 종량세로 전환

- 쇠고기, 돼지고기 모두 일본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(S/G)도 발동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을 일본이 요구하고 있음

#### □ 미일 교섭의 새로운 쟁점

○ 미일 TPP교섭에서 일본의 외국산 쌀을 둘러싸고 새로운 과제가 부상

- 미국정부는 일본이 무관세 수입한도를 늘리기 위해 일본정부의 보증을 요구

-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쌀 수입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, 역시 각료협의의 초점 사안이 되고 있음

○ 미국이 일본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이 수입한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임

- 일본의 소비자들은 일본산 쌀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다, 엔저로 미국산 쌀의 가격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음

- 미국은 현재 일본의 최저수입량 제도에서도 태국과 같이 2대 쌀 수출국이나 TPP의 수입한도에 보증을 받아냄으로써 수출성과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도임

○ 한편 쌀 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대규모의 쌀 수입을 보증하게 되면 그만큼 일본 국내 농가에 대한 타격이 크게 됨

- 일본산 쌀과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, 미국산 쌀의 수입증가 여지는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

- 일본의 정부관계자에 의하면, 수입한도를 대폭 올리고 보증을 하지 않는 편이 5만 톤의 정부보증을 해주는 것보다 영향이 적을지도 모름

○ 7월 말 예정된 미일 각료협의에서는 수입한도의 규모와 보증의 유무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

- 미일 양 정부로서는 수입한도의 대소가 자국 국민에 대한 교섭의 성과로 나타나기 쉬운 반면, 보증의 유무는 실리로 직결되기 때문임

#### □ 미일 간 자유화율 95% 이상

○ 관세철폐대상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미일 간에 95% 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데, 이는 이제까지 일본이 체결한 FTA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

- 일본이 철폐하는 무역품목수는 약 9,000개에 이르는 전 품목의 95% 이상에 달할 전망

- 미국 측도 많은 자동차부품을 관세철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유화율은 미일 쌍방에서 95%를 상회할 전망

○ 일본이 이제까지 체결한 2국간 FTA의 자유화율은 모두 90% 미만으로 쌀, 쇠고기·돼지고기, 보리, 설탕, 유제품 등 주요 5개 항목만으로 품목수가 약 600개에 이르며, 5개 항목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자유화율은 93.5%로 높아지기 때문임

- 일본은 5개 항목 중에서도 수입실적이 적은 품목 등을 철폐대상에 추가하여 자유화율을 높일 계획임

## 2. 경제·재정 재생계획

○ 6월 30일 일본정부는 「2015년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」을 각의 결정

○ 일본정부는 2020년경부터는 인구감소·고령화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와 재정건전화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, 경제와 재정의 일체개혁을 통한 경제재정 재생계획을 단행

○ 구체적인 개혁안으로서, 디플레이션 탈출·경제재생, 세율개혁, 세입개혁 등 3가지 개혁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

#### □ 디플레이션 탈출·경제재생

○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재생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인세 개혁, 규제개혁, 판민펀드 활용, 대일직접투자 촉진 등 성장전략을 가속화

□ **세출개혁**

- 국가, 지방, 민간이 일체가 되어 공적 서비스의 산업화(민간기업과의 협력), 인센티브 개혁(공공서비스의 양보다는 질 향상), 공공 서비스의 혁신(정보공시, 업무의 간소화, 선진국적인 추진방식 보급) 등
-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후발약(특허가 종료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이나 제제기술을 사용해 제조한 비교적 저렴한 의약품)의 이용촉진과 75세 이상의 장구부담 비율 인상 등을 검토

□ **세입개혁**

-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증대를 기본적인 접근방법으로 설정
- 세계 면에서는 직접적인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개혁이 아니고,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하여 세수의 증대를 목표로 할 방침
  - 구체적으로는 성장지향의 법인세 개혁과 근로방식에 대한 중립성 확보를 지향한 개인 소득 과세의 재검토 등이 검토대상이 되고 있음

□ **평가**

- 일본정부의 2015년도 경제재정운영기본방침은 성장과 재정재건의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
  - 성장에 의한 세입증가와 사회보장지출을 중심으로 한 세출억제가 흑자화의 조건이나 양자 모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음
- 재정건전화 계획을 둘러싸고 세출억제를 중시하는 접근과 성장에 의한 세입증대를 중시하는 접근이 대립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경제재생 없이는 재정건전화도 없다는 기본방침을 정함
  - 세출억제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명기치 않음으로써 성장 중시의 색채를 짙게 드러냄
- 이상과 같은 개혁안은 과거에도 제시되었지만 실현될 수 없었던 과제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었다는 지적과 함께,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

**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**

**1. 대일 무역적자 3개월 만에 확대**

□ **(총 합)**

- '15.6월 대일 무역적자는 1,778백만 달러로, 전월보다 612백만 달러 확대
  - 대일 수출은 감소한 반면 대일수입이 대폭 늘어난 데 기인
-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.5%에서 5.0%로 저하된 반면,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9.7에서 10.7%로 상승
  -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7.5%에서 7.2%로 저하

< 2015년 6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달러,%) >

	2015.5월			2015.6월			2015.1-6월	
	금액	증감		금액	증감		금액	증감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대일 수출	2,340	-13.5	-1.6	<b>2,234</b>	-12.8	<b>-4.6</b>	13,334	-17.6
대일 수입	3,505	-19.0	-17.9	<b>4,012</b>	-8.2	<b>14.5</b>	23,836	-11.1
무역 수지	-1,166	-456	-722	<b>-1,778</b>	-28	<b>612</b>	-112	-10,502

자료 : 한국무역통계

□ **(대일 수출)**

- '15.6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4.6% 감소

	대일 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5. 5월	-13.5	<b>-1.6</b>	-10.9	<b>-8.4</b>	-8.7	<b>-9.1</b>
2015. 6월	-12.8	<b>-4.6</b>	-2.4	<b>10.3</b>	-2.9	<b>10.4</b>
2015.1-6월	-17.6	-	-5.1	-	-8.1	-

- 동 기간 중 총수출은 2.4% 감소에 그친 반면, 일본의 수입은 10.4%나 증가한 점 비추어, 대일 수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한 편
- 그러나 '15.6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산업용 전자제품과 광물성 연료, 금속광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 수출이 증가
- 산업용 전자제품의 감소폭이 -37.1%로 가장 큼
-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의 증가폭이 22.5%로 가장 크며, 이어 정밀화학제품과 농산물의 대일 수출증가율도 비교적 높음

< 2015년 6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5.5월			2015.6월			2015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	총계	2,340	-13.5	-1.6	2,234	-12.8	-4.6	13,334	-17.6
1	광물성연료	383	-20.0	25.2	294	-31.5	-23.3	1,854	-42.8
2	철강제품	243	-28.8	-3.2	250	-26.7	2.9	1,510	-28.4
3	전자부품	187	-8.8	0.5	202	-0.5	8.0	1,158	-6.6
4	산업용전자제품	307	0.7	-6.1	193	15.7	-37.1	1,454	4.5
5	석유화학제품	120	-6.6	-6.2	147	-10.9	22.5	711	-9.7
6	정밀화학제품	119	-7.7	-1.7	142	11.3	19.3	716	-5.1
7	수송기계	95	-7.6	-4.0	103	-2.5	8.4	602	-6.4
8	농산물	77	-12.3	-18.9	89	-7.6	15.6	503	-8.3
9	금속광물	99	1.1	0	82	-7.4	-17.2	518	-2.2
10	기계요소공구·금형	78	-19.7	-8.2	81	-18.2	3.8	474	-15.5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- 한편, 2015년 상반기 중 대일 수출은 133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17.6% 감소
- 10대 대일수출 품목별로는 산업용전자제품만이 유일하게 대일 수출이 증가
-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, 광물성 연료와 철강제품의 대일 수출이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

□ (대일 수입)

- '15.6월 대일 수입은 전월의 17.9% 감소에서 14.5% 증가로 크게 반전
- 이는 총수입증가율 1.8%를 크게 하회함으로써 대일수입의존도 상승으로 이어짐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5. 5월	-19.0	-17.9	-15.4	-4.4
2015. 6월	-8.2	14.5	-13.6	1.8
2015.1-6월	-11.1	-	-15.6	-

- '15.6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도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석유화학제품만이 유일하게 대일 수입이 감소
- 대일 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산업용 전자제품, 기초산업기계, 정밀기계, 정밀화학제품 등의 투자재 관련 품목들이 20% 이상의 높은 대일 수입증가율을 보여 국내투자의 회복세를 추측케 함
- 한편, 2015년 상반기 중 대일수입은 238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11.1% 감소
- 10대 대일수입 품목별로는 전자부품, 수송기계, 정밀기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일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, 철강제품의 감소폭이 -26.7%로 가장 큼

< 2015년 6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5.5월			2015.6월			2015.1-6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
	총계	3,505	-19.0	-17.9	4,012	-8.2	14.5	23,836	-11.1
1	철강제품	439	-38.4	-21.6	522	-22.2	18.9	3,105	-26.7
2	전자부품	431	-8.4	-20.3	469	-3.7	8.8	2,966	0.7
3	석유화학제품	458	0.3	-3.8	418	-8.0	-8.7	2,584	-10.5
4	정밀화학제품	262	-21.5	-28.2	318	-10.4	21.4	1,932	-11.6
5	기초산업기계	241	-17.3	-10.4	300	6.0	24.5	1,569	-12.3
6	산업용전자제품	185	-18.9	-29.7	231	-17.9	24.9	1,318	-13.2
7	수송기계	211	-2.3	5.5	220	8.9	4.3	1,263	2.5
8	정밀기계	156	-31.0	7.3	193	-0.8	23.7	1,488	12.2
9	플라스틱제품	186	-22.9	-11.0	193	-17.6	3.8	1,191	-17.2
10	산업기계	158	-23.9	-19.8	188	-10.3	19.0	1,042	-11.2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2. 일본인 직접투자 급증 반전

### □ (동향) '15.2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대폭 증가로 반전

- '15.2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684백만 달러로 전기비 136.7% 증가
  -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 증가율 49.5%를 크게 상회
  - 건수로는 전기비 0.2% 감소
  - 전분기 급감에 따른 반작용과 건당 투자규모 확대의 영향도 증가 반전에 기여
- '15.상반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973백만 달러로 전기비 27.3% 감소
  - 건수로는 2.9% 감소

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(신고기준, 건, 백만달러, %) >

	2013년		2014		2014.4분기		2015년.1분기		2015.2분기		2015.1-2분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의 대한투자	447 (-17.7)	2,690 (-40.8)	352 (21.3)	2,488 (-7.5)	103 (45.1)	850 (73.8)	85 (-17.5)	289 (-66.0)	84 (-0.2)	684 (136.7)	169 (-2.9)	973 (-27.3)
전체 외국인투자	2,607 (-9.1)	14,548 (-10.7)	2,463 (-5.6)	19,003 (30.6)	746 (32.5)	4,185 (-6.7)	558 (-25.2)	3,555 (-15.1)	742 (33.0)	5,316 (49.5)	1,300 (-0.7)	8,871 (2.3)

주 : ( )내는 전기비 증가율, 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외국인직접투자통계

### □ (한·일 기업간 협력 사례)

-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의 합작 및 협업
  -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획득한 태국의 면세점에 일본의 롯데홀딩스가 공동 투자를 진행할 계획, 출자비율은 한국롯데 80%, 일본롯데 20%(2015.7.23. 닛케이)
  - 제과 사업에서도 태국에서는 한국제품, 중국에서는 일본제품의 투입을 늘리는 식으로 상호보완, 협업을 확대할 예정

### □ (시사점)

-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에 대한 예의주시와 함께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
- 최근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도 대한투자의 플러스 요인

## V. 참고 자료

### 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(2015.6월~2015.7월)

#### □ 국내 기관

- 『대일 통상활성화 방안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5년 7월21일  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3487>
- 『아베노믹스의 성과 평가 및 전망』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, 2015년 7월 20일  
<http://keri.koreaexim.go.kr/>
- 『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』 산업연구원, 2015년 7월10일  
[http://www.kiet.re.kr/kiet\\_web/main.jsp?sub\\_num=12&state=view&idx=51208&recom=1912&ord=0](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main.jsp?sub_num=12&state=view&idx=51208&recom=1912&ord=0)
- 『[동향분석]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(2015.7월)』 한국은행, 2015년 7월7일  
<http://www.bok.or.kr/contents/total/ko/boardView.action?boardBean.brdid=117997&boardBean.menuid=2229&boardBean.rnum=2&menuNavId=2229&boardBean.cPage=1&boardBean.categorycd=0>
- 『일본 중국의 ASEAN 크로스보더 M&A 경쟁, 한국의 전략은?』 국제무역연구원, 2015년 7월1일  
<http://iit.kita.net/>
- 『부활하는 파나소닉, 성역 허물고 본업 바꿨다』 LG경제연구원, 2015년 6월29일  
<http://www.lgeri.com/management/strategy/article.asp?grouping=01020100&seq=295>
- 『일본재흥전략(2015년 개정판)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5년 6월26일  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3470>
- 『TPP 이후 한·일 對美 수출 전망』 KOTRA, 2015년 6월26일  
[http://www.globalwindow.org/gw/publishdata/GWPDRE010M.html?BBS\\_ID=30&MENU\\_CD=M10028&UPPER\\_MENU\\_CD=M10007&MENU\\_STEP=2&ARTICLE\\_SE=OM#nolink](http://www.globalwindow.org/gw/publishdata/GWPDRE010M.html?BBS_ID=30&MENU_CD=M10028&UPPER_MENU_CD=M10007&MENU_STEP=2&ARTICLE_SE=OM#nolink)

□ 일본 기관

- 『거시경제모델에 의한 중장기 경제성장예측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2015년 7월25일  
[http://www.meti.go.jp/meti\\_lib/report/2015fy/000555.pdf](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5fy/000555.pdf)
- 『일본 비제조업의 생산성 부진에 관한 고찰』 일본정책투자은행, 2015년 7월22일  
[http://www.dbj.jp/pdf/investigate/etc/pdf/book1507\\_01.pdf](http://www.dbj.jp/pdf/investigate/etc/pdf/book1507_01.pdf)
- 『통상백서 2015』 경제산업성, 2015년 7월4일  
[http://www.meti.go.jp/report/tshaku2015/2015honbun\\_p/index.html](http://www.meti.go.jp/report/tshaku2015/2015honbun_p/index.html)
- 『경제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5』 일본 내각부, 2015년 6월30일  
<http://www5.cao.go.jp/keizai-shimon/kaigi/cabinet/2015/decision0630.html>
- 『제조업의 국내회귀 시리즈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2015년 6월29일  
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insight/jp150629.pdf>
- 『일본의 국제경쟁력』 일본종합연구소, 2015년 6월30일  
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researchfocus/pdf/8254.pdf>
- 『제조업의 미래』 후지즈종합연구소, 2015년 6월27일  
<http://www.jkri.or.jp/PDF/2015/Rep139furukane.pdf>

2. 주요 경제 일정

<7월 실적>

일자	주요 내용
6/30	· 경제재정운영기본방침, 성장전략2015, 규제개혁 등 각의결정
7/2	· 베트남총리 일본방문(4일까지)
4	· 日-베트남 정상회담(도쿄) · 日-메콩지역 국가정상회의(도쿄)
6	· 日-EU EPA 실무급협상(브뤼셀) ·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환경분과회(경산성)
8	· 원자력규제위원회 · 5월 국제수지 발표(재무성)
9	· 5월 기계수주통계 발표(내각부)
11	· 밀라노 세계박람회 재팬데이
13	· 아시아비즈니스서밋(도쿄) · 국립연구개발법인심의회 산업기술종합연구소부회(경산성) · RCEP 각료회의(쿠알라룸푸르)
14	· 그리스 엔포시 외채(사무라이채) 상황
15	· 구로다 일본은행총재 회견 · 국립연구개발법인심의회 신에너지·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부회(경산성)
17	· 하우스텐보스에서 에너지절약·인력절감형 호텔 「이상한 호텔」 오픈(나가사키)
20	· 한중일 FTA 협상회의(24일까지, 베이징)
21	·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 일본방문(26일까지) · 도시바 회계부정문제에 대해 다나카 사장 기자회견
22	· 경제재정자문회의(총리실) · 원자력규제위원회
23	· 6월 무역통계 발표(재무성)
24	· TPP 수석교섭관회의(27일까지, 하와이)
27	· 안보 관련 법안 참의원에서 심의
28	· TPP 각료회의(31일까지, 하와이)
31	· 6월 통계발표(소비자물가지수, 완전실업률, 유효구인배율 등)

<8월 예정>

일자	주요 내용
2	· 이탈리아 총리 일본방문, 日伊 정상회담(4일까지)
6	· 제10회 한일학생미래회의(10일까지, 부산)
10	· 샌다이원전 1호기 재가동 예정(가고시마)
24	· APEC2015 제3회 고급실무자회의 및 관련 회의(9/8까지, 필리핀)
27	· 제16회 한일(호쿠리쿠) 경제교류회의(28일까지, 울산)